

고교 특급 공격수 이재환, 화려한 K리그 데뷔 꿈꾼다



광주FC
동계훈련

태국 코사무이=김여울 기자

연령별 대표팀을 지낸 특급 신인 스트라이커가 수비 고민에 빠졌다.

광주FC의 '특급 유망주' 이재환(18)이 태국 코사무이 동계훈련에서 화려한 데뷔전을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올 시즌 광주 유니폼을 입은 그는 인천 광성중-대전고 출신의 191cm 장신 스트라이커다.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드리블 실력과 왼발을 활용한 슈팅 타이밍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이재환은 특히 문전에서 파괴력이 돋보이는 선수다.

아마시절 '득점왕'을 찍을이었던 그는 연령별 대표팀까지 지낸 특급 유망주다. 많은 이의 기대 속에 프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골잡이'지만 그는 프로 첫 동계훈련에서 공격이 아닌 수비 걱정을 하고 있다.

이재환은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플레이적인 부분,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을 통한 피니시 능력이 강점이다"면서도 "동계훈련에서 신경 쓰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수비"라고 이야기했다.

이정호 감독은 빠른 템포를 바탕으로 포지션에 상관없이 모든 선수가 공격과 수비에 가담하도록 주문한다. 공격수라고 해서 골만 잘 넣으면 되는 게 아니다. 수비 부담 능력도 보여줘야 경기에서 출전할 수 있다. 외국인 공격수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환은 "공격만 하면 경기를 못 뚫는다. 오전이나 저녁이나 따로 훈련하면서 형들 체력 맞추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 시즌에 많이 뛰기 위해서는 체력적인 부분과 수비 부담 능력이 되어 한다. 그래야

191cm 키에 문전 파괴력 돋보여...아마시절 '득점왕' 찍을이
"공격만큼 수비 훈련도 열심히...올해 꼭 공격포인트 10개 달성"

강점인 공격적인 부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비에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 도전에 앞서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재환은 만나고 싶었던 이정호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매일 성장하고 있다.

이재환은 "형들이나 감독님이 적응에 도움을 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고등학교와 프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매일 느낀다. 속소 생활, 밥 맛있는 것, 미팅, 훈련 시설 그냥 다 완전 다른 거 같다"며 "이정호 감독님이랑 맞춰 보고 싶어서 광주FC로 온 것도 있다. 워낙 명장이시다. 처음에 감독님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웃음). 감독님 축구는 많이 어려우니까 살아남기 위해 지시 사항 잘 따르고, 용량이 많이 뛰는 포지션이니까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고등학교 시절 광주 추구를 많이 챙겨봤던 그는 직접 광주 선수로 뛰면서 '정호불'의 매력에 푹 빠졌다.

이재환은 "K리그에서 광주 추구가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 챙겨봤다. 영상으로 볼 때 엄청 다이나믹하고, 유기적인 움직임, 패스의 질 이런 게 눈에 띄었는데 직접 해보니 템포가 더 빠르고 퀄리티가 더 좋았다. 그래서 광주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스트라이커라는 자리가 더 받아줘야 되는 것, 더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부분 등 '스트라이커'가 이런 움직임을 하거나 이런 자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감독님 전술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다.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선수인 것 같다. 첫 프로 생활을 광주FC라는 구단과 K리그에서 내로라하는 이정호 감독님 밑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이 영광이다"고 언급했다.

형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감탄하는 막내지만 패기는 형들 못지않다. 이재환은 스트라이커답게 자신 있게 또 과감하게 골대를 두드리겠다는 각오다.

이재환은 "공격수 형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박)인혁이 형 터치가 너무 좋아서 본받고 싶다. (박)정인이 형 등을 보면서도 많이 배우고 있다"며 "피니시 능력은 자신있다. 연습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된다. 개인적으로 스트라이커는 박스 안에서의 침착함이 1순위라고 생각한다. 골을 넣을 수도 못 넣을 수도 있는데 못 넣더라도 침착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차야 한다. 실패했다고 소극적으로 하는 것을 진짜 싫어한다. 기회가 오면 무조건 시도해야 한다. 넣으면 주인공이 된다. 골을 못 넣으면 욕은 먹겠지만 그런 걸 감수하는 게 스트라이커의 몫이다"고 공격적인 도전을 예고했다.

광주는 2월 11일 산둥 타이산(중국)과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에 이어 15일 홈에서 수원FC를 상대로 2025 개막전을 치른다. 프로 데뷔를 앞둔 그는 데뷔전부터 당찬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다.

"당장 2월에 아젠다도 있고 또 홈에서 개막전도 있다. 하루 빨리 몸 올려서 형들과 조합 잘 맞추고 데뷔하고 싶다. 데뷔전 데뷔골은 상상할 것 같아서 목표 표를 데뷔전 멀티골로 가겠다. 감독님 스타일 아니까 빨리 세리머니하고 다음 득점 기회 노리겠다"며 웃은 이재환은 "중거리 슈팅, 원더골, 발리슛 이런 골도 해보고 싶다. 올 시즌 공격포인트 10개에 도전하겠다. 개막전부터 팬들에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태국 코사무이에서 동계훈련 중인 광주FC '특급 유망주' 이재환.



KIA 김도영이 연봉 5억원에 재계약을 마치고 KBO리그 4년 차 역대 연봉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김도영 연봉 5억 계약 '4년차 역대 최고' ...지난 시즌보다 4억 '경증'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5억원에 재계약을 완료하면서 KBO리그 4년 차 역대 연봉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도영은 20일 지난 시즌 연봉 1억원보다 4억원 인상된 5억원에 연봉 도장을 찍었다. 5억원은 KBO리그 역대 4년 차 연봉 최고액이다. 앞선 기록은 키움 이정후의 3억 9000만원으로 이보다 1억 1000만원을 뛰어 넘는 금액이다.

김도영은 400% 인상된 금액에 계약을 끝내면서 팀 내 역대 최고 인상률 기록도 갈아치웠다.

앞선 팀 내 역대 최고 인상률은 233.3%(2015년 양현종 1억2000만원→4억원, 2024년 최지민

3000만원→1억원)이다. FA와 다년 계약을 제외하면 2020년 하재훈(SSG)의 455.6%(2700만원→1억5000만원)에 이은 KBO 리그 역대 두번째 인상률이다.

김도영은 지난 시즌 KBO 기록들을 새로 쓰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등극했다.

KBO 리그 최초 월간 10홈런-10도루, 최연소 최소경기 30홈런-30도루, 최소타석 내주릴 사이클링 히트 등 강렬한 활약을 펼친 그는 3루수 골든글러브와 정규시즌 MVP 트로피도 차지했다.

한국시리즈에서도 4안타 1홈런 3득점 5타점의 활약을 하면서 3년 차에 첫 한국시리즈 우승 반지

를 차지했다.

재계약을 끝낸 김도영은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준 구단에 감사하다. 만족스러운 계약을 하게 돼 기쁘면서도 올 시즌 더 잘해야 하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연차 거둬들일수록 계속 성장하는 선수가 되겠다"며 "지난 시즌 팬들이 보내 주신 성원에 힘입어 그라운드에서 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팬들에게 항상 감사드리고, 올 시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도영과의 협상을 마무리한 KIA는 22일까지 2025년 연봉 재계약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뇌진탕 교체·외국인 4명 동시 기용

2025 K리그 달라지는 점

화성FC 합류 26개 구단 체제로
아시아·동남아 쿼터 모두 폐지
외인, 국내 선수 인정 '흠그로운'

2025시즌 K리그가 2월 15일 오후 1시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리는 포항스틸러스와 대전하나시태즈의 K리그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한다. 2월 22일에는 K리그2 일정이 시작되는 등 개막이 성큼 다가왔다. 새로운 시즌을 앞둔 K리그의 달라지는 점을 알아본다.

차두리 감독이 이끄는 화성FC가 K리그2에 뛰어들면서 올 시즌부터 K리그는 26개 구단 체제로 운영된다. 4연패를 노리는 울산을 필두로 K리그1에서는 12개 팀이 우승 경쟁에 나서고, K리그2에서는 화성 포함 14개 팀이 승격을 위한 전쟁을 벌인다. 14구단 체제가 된 K리그2는 팀별로 39경기씩 275경기를 치른다.

외국인 선수 보유가 확대되면서 K리그1은 국제 상관이 없이 최대 6명을 등록하고, 4명을 동시에 기용할 수 있다. K리그2는 최대 5명 등록, 4명 동시 출장이 가능하다. 앞서 운영됐던 아시아 쿼터와 동남아시아 쿼터는 모두 폐지됐다.

선수 안전을 위해 올 시즌부터 뇌진탕 교체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3월 국제축구평의회(IFAB)에서 뇌진탕 교체 제도 도입을 최종 승인하면서, 각 팀은 경기당 최대 1명의 뇌진탕 교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교체 인원수와는 무관하며 경기 중 한 팀이 뇌진탕 교체를 할 경우 상대도 추가 교체할 수 있다. 뇌진탕 교체 시행 여부는 팀 의료진이 결정한다.

흠그로운 제도 도입으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 국적 보유자가 K리그에 등록될 경우 국내 선수로 간주한다.

외국 국적의 유소년 선수가 프로 입단 시점 이전 기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3년 연속 또는 총 5년 연속 등록됐을 경우, 국내 선수로 인정받게 된다.

흠그로운 제도를 적용받는 선수는 프로 최초 입단 시 K리그 선수 규정에 따라 신인 선수 계약을 하게 된다. 구단당 1명의 쿼터가 주어진다.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경기 수준 향상을 위해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연맹이 경기장을 교체하게 된다.

연맹은 그라운드가 정상적인 경기를 치를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고 판단하면 홈과 원정 경기장을 바꾸거나, 홈팀에 제3의 경기장을 찾도록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또 AFC 챔피언스리그, FIFA 클럽월드컵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구단 지원을 위해 연맹이 상대팀 동의 없이 직권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제대회 참가 구단들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대회 토너먼트 병행으로 인한 리그 일정 불안정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구단이 입대를 받거나 보낼 수 있는 최대 인원은 FIFA 규정에 따라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동일 구단 간 선수를 임대받거나 보낼 수 있는 인원도 기존 1명에서 최대 3명으로 확대됐다. 최대 임대 기간은 1년이다.

또 연맹은 구단 재무 정보를 취합·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K리그 파이낸셜 매니저'를 도입한다. 각 구단의 재정 자료를 전산화해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정건전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4월 도입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임성재 명예 회복에 나선다

23일 PGA 파머스 인슈어런스

임성재는 오는 23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골프 코스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총상금 930만달러)에 출전한다.

임성재는 이번 시즌 개막전 더 센트리에서 3위에 올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음 대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통산 3승에 도전했지만, 충격의 첫 탈락을 당했다.

임성재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이 열리는 토리파인스 골프 코스에서는 좋은 추억이 많다.

6번 출전해서 5번 컷을 통과했고, 2002년 6위에 이어 2023년에는 4위에 올랐다.

한차례 컷 탈락이 바로 작년이다. 임성재는 직전 대회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컷 탈락과 작년 이 대회 컷 탈락의 아쉬움을 씻어내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우승하면 최경주의 한국인 PGA 투어 최다 통산 상금 기록 경신도 가능하다. /연합뉴스